

해당 문서는 pc로 작성되었습니다.

유튜버 논스탑 **@NONSTOP_4EVER**을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으로 공론화합니다.

해당 문서는 해당 인물에 대한 공론화 사유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는 사이버 불링(싸불)의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해 작성되었음을 밝히며, 본인이 직접 겪은 사실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요약

상대방(NONSTOP)은 공공장소에서 **임산부석**을 '**미래에 너가 앉을 자리**'로 언급하며 성적 비하 발언을 일삼았고, 기습적인 키스와 허락 없는 신체 접촉(엉덩이 등)을 감행하였습니다.

작성자의 외모를 수시로 평가하며 위축시켰습니다. "**예쁜 애를 만나면 내가 묻혀서 싫다**"는 식의 발언으로 저를 본인의 돈보임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거나, "**너 정도면 눈 작은 편 아니냐**"며 구체적인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비하를 일삼았습니다.

이별 후 SNS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작성자의 **거주지와 성씨**를 공개하며 공개적인 조롱을 가했습니다.

특히 작성자가 가진 과거의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를 비하의 소재로 사용하며 '**지 전남친한테 강제추행당한 상태로 나한테 왔어 미친년이**' 등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작성자에게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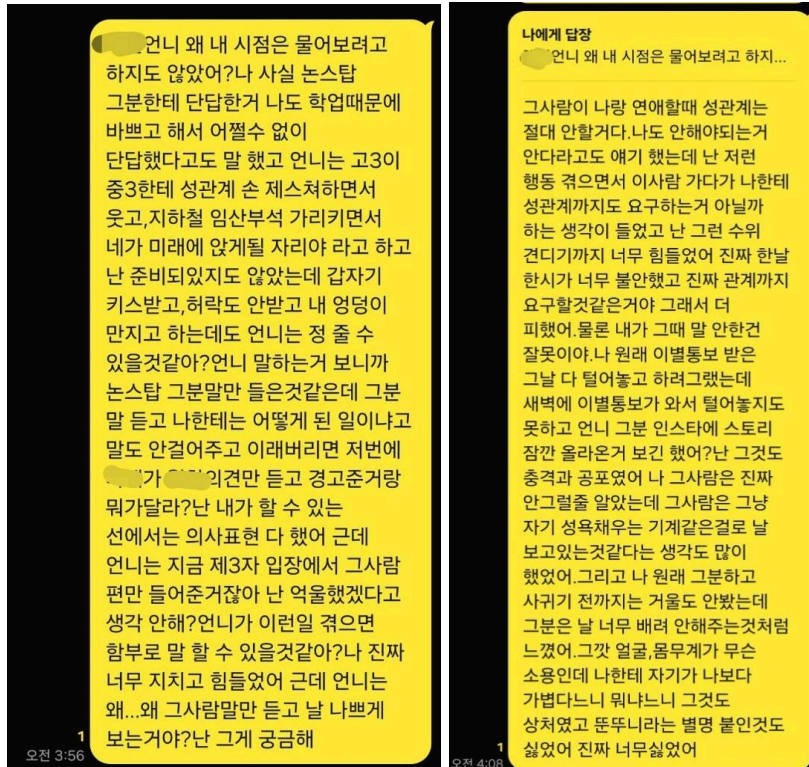
본 공론화는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단체 채팅방이나 타인과의 대화, SNS를 통해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기에, 추가 피해 방지와 공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에는 공론화 작성자와 **NONSTOP** 님의 사적 대화, 그 외 지인과의 대화 및 허락받고 전달받은 내역, 공론화 작성자와 제3자의 개인적 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 발생 당시, 상대방은 저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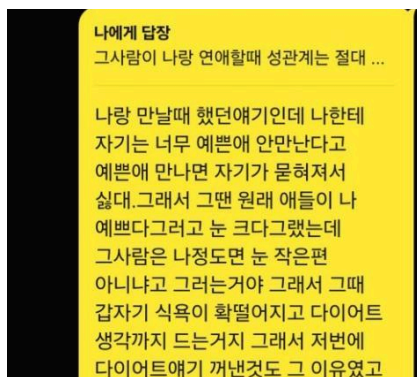
지하철 이용 중, 상대방은 임산부 배려석을 가리키며 저에게 "**네가 미래에 앉게 될 자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여성으로서의 미래를 단순히 성적 역할로만 치부하는 명백한 성적 비하 발언이었으며, 공공장소에서 저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키스를 시도하고, 엉덩이 등 예민한 부위에 대한 허락 없는 신체 접촉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강제 추행이며, 저의 신체 결정권을 완전히 무시한 폭력적인 행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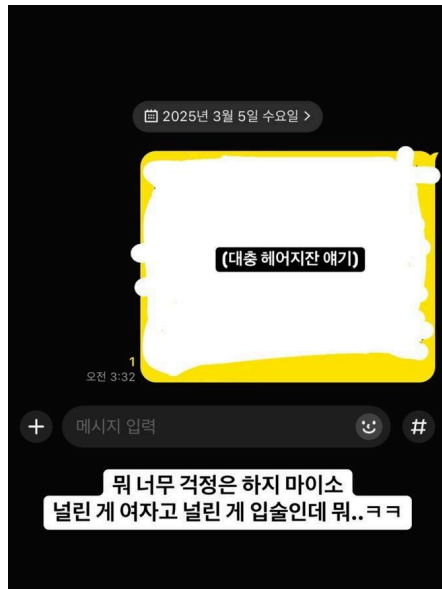
ㄴ 같은 채팅방 내 구 지인과의 대화 중 작성한 내용

상대는 수시로 저의 외모를 평가하며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예쁜 애를 만나면 내가 묻혀서 싫다"는 식의 발언으로 저를 본인의 돈보임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거나, "너 정도면 눈 작은 편 아니냐"며 구체적인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비하를 일삼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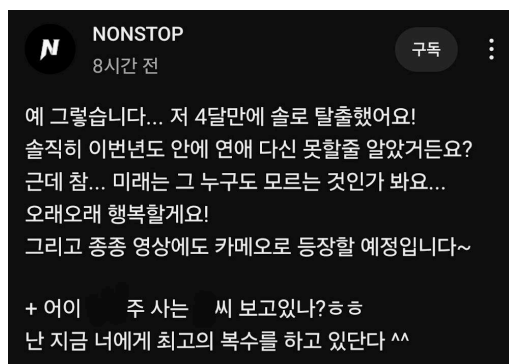
ㄴ 같은 채팅방 내 구 지인과의 대화 중 작성한 내용

이별 통보 직후, 상대방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널린 게 여자고 널린 게 입술인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함께했던 시간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을 인격체가 아닌 대체 가능한 물건처럼 묘사하는 표현으로 저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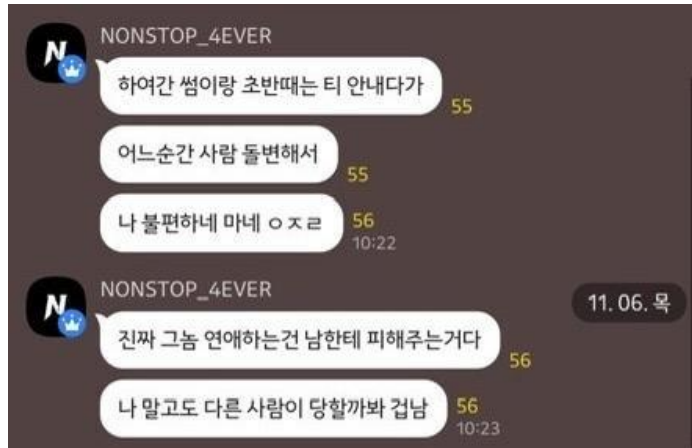
↳ NONSTOP의 인스타그램

상대방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저의 거주지와 성씨를 언급하며 "**00주(지역) 사는 0(성씨) 씨 보고 있나?** 최고의 복수를 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며 '복수'라는 단어를 사용해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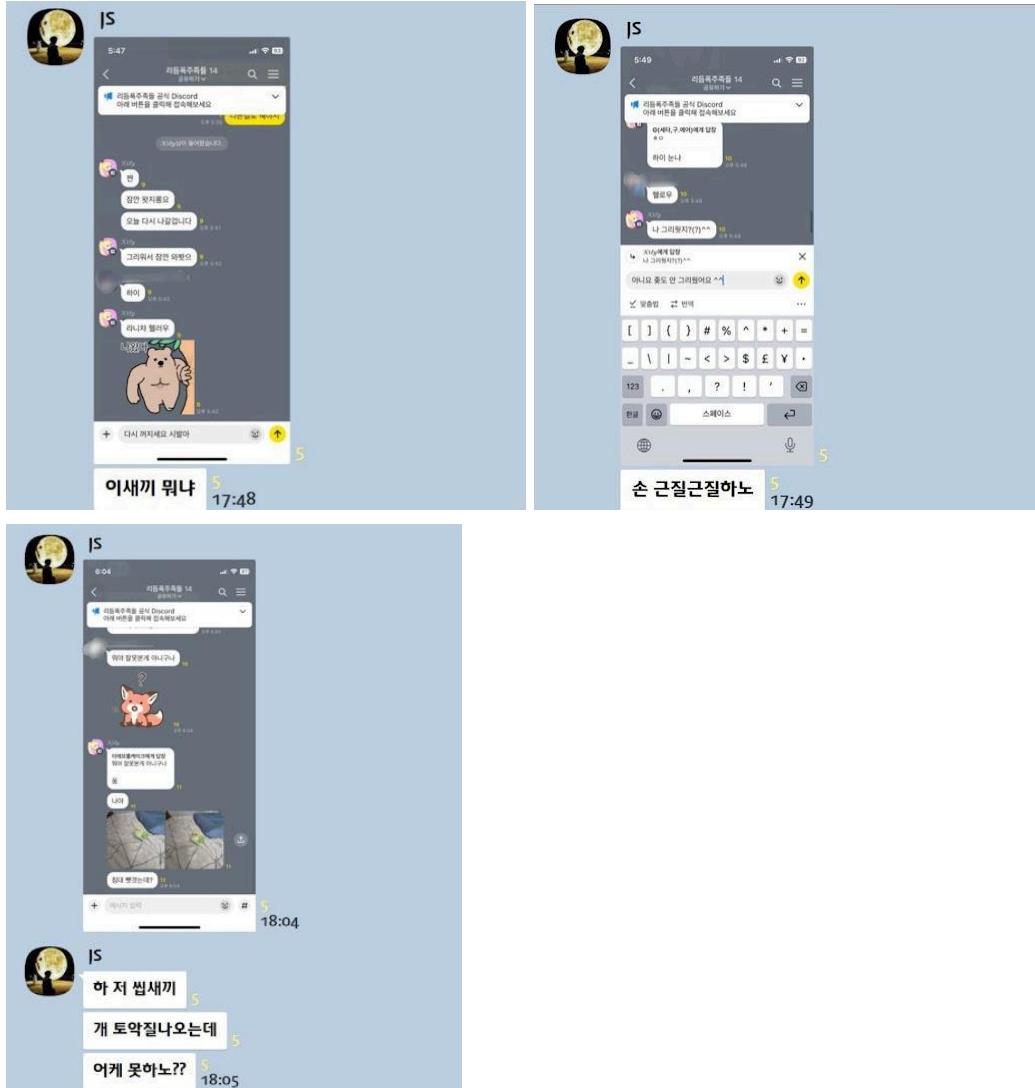
↳ NONSTOP의 유튜브 커뮤니티

이별 이후에도 지속하여 자신의 단체 채팅방에서 해당 사실들(성희롱, 추행)관련으로 불편함을 표시했던 것에 대하여 '갑자기 돌변했다' '그놈 연애하는 건 남한테 피해주는거다' 등을 발언하며 본인의 가해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제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공포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단순히 '갑자기 돌변한 태도'로 치부하고, 단체 채팅방 내에서 저를 '연애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낙인찍으며 명백한 2차 가해를 일삼았습니다.



↳NONSTOP소유의 단체 채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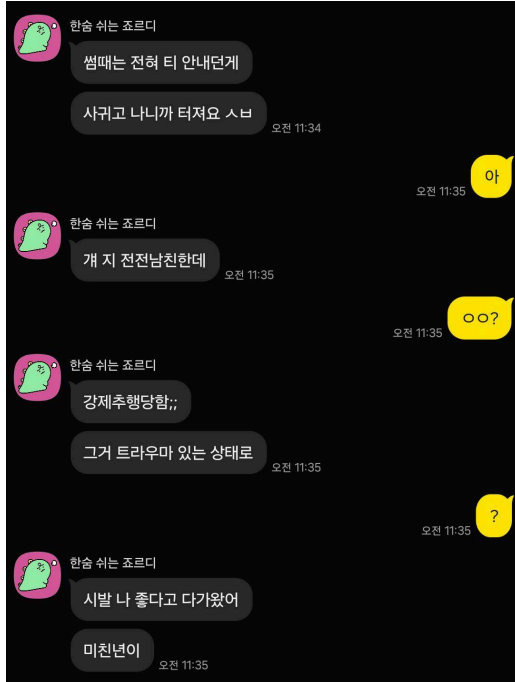
상대방(NONSTOP)과 그 지인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적인 2차 가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제가 채팅방에 입장하자마자 "저 쌤새끼 개 토악질 나오는데 어케 못하노"라며 욕설을 퍼부었으며, "다시 꺼지세요", "손 근질근질하노"와 같은 발언을 통해 위해를 가할 듯한 위협과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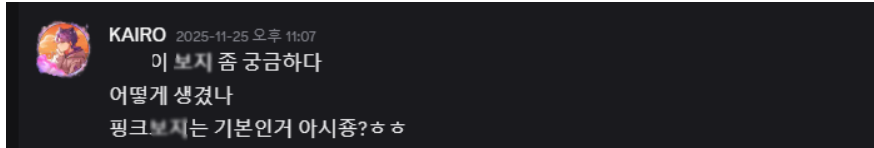
↳NONSTOP이 가입된 단체 채팅방

제가 과거에 겪었던 강제추행 피해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NONSTOP 님은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저의 아픈 과거를 언급하며 '사귀고 나니 (트라우마가) 터진다'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고, 저를 향해 '미친년'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모욕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상처로 남은 사건을 본인의 연애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취급하며 뒤에서 조롱하는 태도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 NONSTOP과 타인의 대화



↳ NONSTOP과 NONSTOP의 구 애인과의 대화

NONSTOP(KAIRO)은 과거 연인과의 대화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다", "핑크색은 기본이다"라는 식의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타 입장

제가 겪은 일들이 결코 '가벼운 연인 간의 다툼'이나 '돌변한 태도'로 치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로 저를 비방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3**자분들께서는 가해자의 신상 유포나 도를 넘은 비난보다는, 사건의 본질인 '성폭력 및 **2**차 가해'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해당 문서는 사이버 불링(싸불)의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해 작성되었음을 밝히며,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